



SEE MORE JESUS · WANTTOSEEMORE.COM

성경은 자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 제2부 · 스트롱 번호가 포함된 KJV 성경 구절

PART 2 · 성경적 기초 교리 위에 세워진 새로운 연구

자비 — 기초 성경 교리

개회사

들으라. 사람이 만든 모든 신은 아침받고, 값을 치르고, 기쁘게 해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이 산 위에 서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우레로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협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자비로우신 분이라 칭하셨다. 그런 다음 믿기 어려운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자비는 단지 그가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기쁨이다 —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달려서 집으로 돌아올 때 느끼는 기쁨과 같다. 그의 자비는 바닥나 가는 낚은 공급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매일 아침 새롭게 예비된다. 이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신실하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그 자비가 어떻게 돌이켜 너를 바라보는지 들으라. 자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네가 그가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 그가 네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네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그는 네가 네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네 예물을 갈망하지 않으신다. 그는 천 번의 번제보다 하나의 정직하고 상한 마음을 더 원하신다. 그렇다면 죄 있는 자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기어오름으로가 아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함으로가 아니다. 고백함으로 — 죄를 덮는 대신 그것을 인정함으로 — 마치 멀리 서서 부끄러워 눈을 들지도 못하고 오직 자비만을 구했던 그 상한 사람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집에 돌아갔으나, 종교적인 사람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 이제 네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보좌가 있다 —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발견하는 자비는 네 손을 잡고 떠나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따라온다. 모든 길을 따라, 모든 넘어짐을 통과하여, 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것은 너를 따라온다 — 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집은 그의 집이며,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 그것이 이 연구가 네 앞에 내놓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찾아보라.

이 연구가 답하는 세 가지 질문:

1.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이름하셨으며 —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2.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죄를 지은 사람이 자비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3. 긍휼은 지금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며, 그것은 그를 얼마나 멀리까지 따라갈 것인가?

기초는 이미 놓였다 — 자비

→ 자비(헤세드) = 언약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자비 (GENESIS 19:29; PSALM 136).

→ RACHAM = 더 큰 자에게서 더 작은 자에게로 흘러가는 깊은 사랑 (GENESIS 32:9-12).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이 가려고 하는 만큼 그를 인도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온전히 확신할 때까지 머무르신다 (창세기 19:17-22, 소알로 간 롯).

사람은 모든 자비 중 지극히 작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 자비는 선물이며, 그 선물은 감사를 가져온다

궁핍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곧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창세기 32:11-12).

여호와께 감사하라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1-26).

이 제2부는 새로운 증인들을 통해 동일한 진리를 확증합니다.

그리스어 핵심 단어

“자비” — **G1656 eleos** — 고통받는 자에게 몸을 굽혀 행하는 친절 — 동정,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느낌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움직인다 — 그것은 약속되고, 행해지고, 얻어지고, 보좌에서 발견된다

“자비를 베풀라” — **G2433 hilaskomai** — 긍휼히 여기다, 속죄하다 — 속죄소 계열 단어군

이 세리의 기도 전체가 바로 이 한 단어에 달려 있다: 그는 피 흘린 자리에서 자신을 만나 주시기를 구하였고 —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자비” — **G3628 oiktirmos** — 연민, 동정심 — 복수형으로 곱해진 자비

하나님은 한 가지 자비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자비들의 아버지시니 —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들의 아버지시니라

히브리어 핵심어

“자비” — **H2617 chesed** — 언약적 인자, 변함없는 자비

언약 관계에서 흘러나와 결코 그치지 아니하는 자비 — 그 기초 자체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온 것

“자비로운” — **H7349 rachum** — full of tender compassion; from the same root as the womb (rechem) ■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 태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 —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향해 품는 깊은 사랑이다

“용서하다” — **H5375 nasa** — 들다, 지다, 옮기다

궁핍은 죄를 못 본 채하지 않는다 — 그것은 죄를 죄인에게서 들어 올려 멀리 옮겨 가져간다 (속죄양 자체의 용어, 레위기 16:22)

“불쌍히 여기다” — **H2603 chanan** — 아래에 있는 자에게 친절히 몸을 굽히거나 구부리다, 은혜를 베풀다

죄를 크게 범한 후에 다윗이 부르짖음 — 은혜가 죄 있는 사람에게까지 완전히 내려오심

오프닝 앵커

미가 7: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5375 nasa · ■ H2617 chesed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 그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 인애를 기뻐하시는도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여기서 “용서하다”는 히브리어 나사(H5375, 나사, 짊어지다)이다: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옮겨가다. 자비는 죄가 없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 — 그것은 죄를 그 사람에게서 들어 올려 옮겨간다. 속죄양은 바로 이 같은 단어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옮겨갔다(레위기 16:22).)

I. 선포된 이름 —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A. 출애굽기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7349 rachum · ■ H2587 channun · ■ H2617 chesed · ■ H2617 chesed · ■ H5375 nasa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 —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자비로운" — 라춤(H7349, merciful), 그 태의 뿌리 단어 — 이 무엇보다도 먼저 나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이름의 정문입니다.)

B. 시편 86:15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이시오니

원어 열쇠 / **STRONG'S**: ■ H7349 rachum · ■ H2617 chesed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도다.

C. 시편 86:5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니이다.

D. 느헤미야 9:17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니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7349 rachum · ■ H2617 chesed

저희가 목을 굳게하였으나 →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E. 고린도후서 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원어 열쇠 / **STRONG'S**: ■ G3628 oiktirmos

축복받으실 하나님 =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II. 긍휼의 분량 — 아침마다 새로우며 하늘같이 높음

A. 예레미야 애가 3:22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 ■ H7356 racham

소멸되지 아니함은 그의 자비가 다함이 없음이라 → 아침마다 새로우며 +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며, 자궁을 뜻하는 레헬과 어원이 같습니다.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자에게 이르는,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깊은 자비 —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치지 않으며, 아침마다 새롭게됩니다.)

B. 시편 103:8 여호와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원어 열쇠 / **STRONG'S**: ■ H7349 rachum · ■ H2617 chesed · ■ H2617 chesed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셨나니 →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C. 미가 7:19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7355 racham

그가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시리라 → 그들의 모든 죄 → 깊은 바다에 던지우리라.

D. 신명기 4:31 네 하나님 여호와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7349 rachum

주 너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III. 요구되는 긍휼 —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A.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B. 호세아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하노라.

C. 잠언 3:3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 그리하면 네가 은총을 얻으리라.

D. 스가랴 7:9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 ■ H7356 racham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니라.

IV. 긍휼을 얻음 — 자백하라, 부르짖으라, 담대히 나아가라

A. 잠언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7355 racham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 긍휼을 얻으리라.

B. 시편 51:1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원어 열쇠 / **STRONG'S**: ■ H2603 chanan · ■ H2617 chesed · ■ H7356 racham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

C. 누가복음 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2433 hilaskomai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여기서 "자비를 베푸소서"는 흔히 쓰이는 자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힐라스코마이(G2433, 자비를 베풀다) — 속죄소의 단어, 화목제물의 단어입니다. 그 세리는 하나님께서 뿌려진 피 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던 그 방식으로 자기를 만나 주시기를 구한 것이며 —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D.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갈 것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1656 eleos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리라.

두 입 — 동일한 이름이 두 입과 세 번째 입에 세워지다

요엘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원어 열쇠 / **STRONG'S**: ■ H7349 rachum · ■ H2617 chesed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나니

요나 4:2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7349 rachum · ■ H2617 chesed

나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므로 도망하였나이다.

같은 이름, 두 마음: 요엘 →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요나 → 내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하였음이니이다.

시편 145:8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원어 열쇠 / **STRONG'S**: ■ H7349 rachum · ■ H2617 chesed

여호와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충만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제 개인적인 생각—두 증인의 입에서 말이 확증되고, 여기 세 번째 입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돌아선 선지자와 도망친 선지자와 노래한 시편이 모두 같은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굳게 섭니다.)

그림자와 성취

Shadow 미가 7:20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리이다 =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Fulfillment 누가복음 1: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원어 열쇠 / **STRONG'S**: ■ G1656 eleos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이루사 →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내 개인적인 생각 — 옛적부터 맹세하신 긍휼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행하신 긍휼이다. 이것은 언약의 긍휼이며, 한 글자도 어김없이 지켜진 것이다.)

마무리

시편 103:17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느니라.

시편 23: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원어 열쇠 / **STRONG'S**: ■ H2617 chesed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 개인적인 생각—전체 연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비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그 첫 마디가 스스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자비는 왔다가 가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새롭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죄를 멀리 옮깁니다. 것처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를 구하십니다—그가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 형제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며, 기어오르지 않고 부르짖으며 나아올 때, 자비가 그를 만나 줍니다—그리고 그를 문 앞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 모든 날 동안 그를 따라가서, 마침내 그를 여호와와 집으로 데려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자비는 시작한 사람을 마치기 전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습 퀴즈

1. 미가 7:18 — 그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엇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니이까:

- a) 희생
- b) 긍휼
- c) 번제

2. 애가 3:22-23 —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a) 아침
- b) 세대
- c) 날

3. 미가 6:8 —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 a) 번제를 드리라
- b) 그것들을 네 목에 매라
- c)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4. 잠언 28:13 —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 answer a) 변명하지 못한다
- 자비를 얻으리라
- c) 은혜를 찾다

5. 히브리서 4:16 —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 a)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 b) 여호와와 집에 거함
-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6. 시편 103:11 —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 향한 자는:

그를 경외하는 자

- b) 그의 기업의 남은 자
- c)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

7. 누가복음 18:13-14 —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집에 내려 갔느니라:

- a) 높아진
- b) 낮아짐
- c) 의롭다 하심을 받음

정답: 1-b, 2-a, 3-c, 4-b, 5-c, 6-a, 7-c

이 연구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림자가 어떻게 빛을 가져오는가: 산에서 선포된 그 이름 —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출애굽기 34:6) — 이것이 그림자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행하신 그 동일한 공훈 (누가복음 1:72)이 빛이다. 하나님께서 한때 구름 속에서 선포하셨던 그 이름을, 그분은 마침내 한 얼굴로 나타내 보이셨다.

새 언약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율법 아래서 그의 공훈은 천대까지 베풀어졌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맹세된 공훈이 이루어졌고, 은혜의 보좌가 열려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히브리서 4:16). 언약의 공훈은 열린 문이 되었다.

단어들이 왜 중요한가: 그 이름에서 "자비로우신"은 라춤(H7349, MERCIFUL)이며, 태를 뜻하는 말에서 온 단어로, 맨 처음에 자리한다. "용서하시는"은 나사(H5375, TO BEAR)로, 들어 올려 짊어지고 옮겨 가는 것을 뜻한다. 세리의 입술에 오른 "자비를 베푸소서"는 힐라스코마이(G2433, BE MERCIFUL)로,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단어들 그 자체가 들어가는 길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공훈과 멸시받는 세리가 부르짖어 구한 공훈은 동일한 공훈이다 (누가복음 1:72; 18:13). 공훈은 결코 혈통이나 자격으로 담하지 아니하였으니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얻느니라(잠언 28:13).

→ 이것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방식: 세리의 방식으로 나아가라 — 올라가려 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고백하라. 당신이 숨기고 싶은 죄를 드러내라, 그러면 공훈이 당신이 드러낸 것을 덮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따라 집까지 이른다.

이것이 영원을 위해 의미하는 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생의 모든 날 동안 따르며, 그 길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끝난다(시편 23:6).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나니(시편 103:17)—그것은 당신을 인도해 들이기까지 그치거나 끝나지 아니한다.

결과지 이야기: 공훈을 얻는 은혜의 보좌(히브리서 4:16)는 휘장 안에 있는 속죄소로 이어지며 — 이는 실천하기 연구(출애굽기 25:17-22; 히브리서 9:5)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진다.

가능한 통찰: 세리가 말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공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시은좌라는 단어, 곧 화목제물이 라는 단어이다. 그는 하나님께 피의 자리에서 자기를 만나 주시기를 구하였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공훈에는 언제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는 우리의 성경 공부를 살펴보자

SOURCES & CREDITS

Scripture: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Korean Revised Version, 1961), 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Public Domain (copyright expired 2011-12-31; confirm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Department, The Bible Society of Korea, 2026-08-06)) — a redistributable edition, looked up exactly and never machine-translated.

Alternate chapter/verse numbering reconciled with STEP Bible TVTMS (CC BY 4.0).

Strong's numbering & original-language data: OpenScriptures Hebrew Bible (CC BY 4.0); STEP Bible.org — TAHOT/TAGNT/TBESH/TBESG (CC BY 4.0); Robinson-Pierpont Byzantine Majority Text (Public Domain); Strong's dictionary, 1890 (Public Domain).

Typography: Google Noto fonts (SIL Open Font License 1.1).

© SEE MORE JESUS · wanttoseemore.com — shar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CC BY 4.0).